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레짐의 성패에 관한 사례연구:
강대국의 실행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Success and Failure on Weapons Mass Destruction
Nonproliferation Regimes: Focus on Chemical Weapons Conventions and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s

박기철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s)는 핵, 화학무기, 그리고 이들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포함하며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과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무기를 말한다. 야만과 폭력이 지배한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유럽의 전장에서는 9백만명 이상의 인명이 독가스와 함께 사라졌다.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하버(Fritz Haber: 1868-1934)는 암모니아 합성법을 확립하여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살상하는 염소가스를 만들어 1차 대전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범 과학자이기도 하다. 생화학 기술의 발달은 인류를 더욱 고통스럽게 죽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목도한 세계 각국은 이 무시무시한 WMD의 공포로부터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 WMD의 생산·비축·이전·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레짐 창설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 첫 번째 노력으로 탄생한 제네바 의정서(1925)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안보현장에는 19개의 WMD 비확산 레짐이 존재한다.

WMD 비확산 레짐 중에는 강력한 상설 협약 이행 기구를 갖추고 실질적인 비확산 목표를 달성하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레짐도 있지만, 비준조차 되지 못하고 효력 발생이 중단된 레짐도 있다. 신현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국제 협력이 발생하는 무역과 경제, 환경 분야와는 달리 WMD 비확산 레짐의 영역에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레짐의 효과성이 좌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연구질문(1): 레짐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연구질문(2): 강대국이 레짐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실행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925년부터 오늘날까지를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까지, 미소냉전 시기 그리고 냉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고 19개의 주요 WMD 비확산레짐에 대하여 일치법 추론방법을 통해, 레짐의 이행 강화 요인(factors)을 식별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레짐의 효과성을 측정함으로써 연구질문(1)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질문(2)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4개의 사례연구를 통해 강대국이 레짐을 선별적으로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요인(determinants)를 찾을 것이다.

레짐의 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핵무기 비확산 레짐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화학무기 비확산레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핵무기의 화학무기에 대한 억제력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핵무기가 사용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핵무기 억제력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억제하지 못했다. 강대국은 화학무기 사용시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핵억제력은 이라크,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과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는 화학무기테러를 억제하지 못했다.

대량살상무기의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한 건틀루펫(Vaidya Gundlupet)은 핵무기의 화학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과신하여 강대국은 핵무기 비확산 레짐에만 선택적인 지지를 보일 것이며, 따라서 핵무기 비확산레짐은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핵무기 비확산레짐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의 실패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화학무기 레짐인 화학무기금지조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s)은 성공하고 생물무기금지조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s)은 실패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건틀루펫의 이론이 간과한 다른 결정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기술 격차를 추가하여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강대국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조건이 형성되고, 레짐 이행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레짐 이행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 할수록, 강대국과 지역강국 간에 레짐이행에 따른 거래가 형성 될수록, 그리고 강대국과 지역강국 간에 기술적 격차가 크지 않을수록 레짐에 대한 지지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하였다.

박기철은 육군사관학교와 US Army CBRN School을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정책특기(620) 장교로 청와대,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주한미8군사령부에서 대량살상무기 대응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에서 화학무기 사찰담당으로 CWC 이행을 담당하였으며, 생물무기 검증담당으로 BWC 국내이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UN 제네바 군축사무소 주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베이징 전문가회의(2009), 마닐라 회의에서(2010)에서 정부대표로 활동하였다. 현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교안보전공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 ‘국제관계사(외교사)’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 학부에서 'IR Simula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Relations Seminar'를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United Nations, Indo-Pacific Security and the Korean Peninsula", Routledge Press(2023)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글로벌안보 분과위원장, 법무법인 효천 상임고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ate & Time: April 15, 2025.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